

# 극장가 암흑 갯 '침입자' 관객 30만 명 돌파 눈 앞

주말 23만8444명...개봉 4일 누적 28.8만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10만명대 첫 동원

영화 '침입자' (감독 손원평)가 주말 3일간 23만 8444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침입자'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주말 3일간 23만 8444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수는 28만 8853명이다.

지난 4일 개봉한 이래 4일간 1위를 지켜온 이 영화는 개봉 첫날 4만9578명을

동원하며 107일만에 최다관객수를 동원한 바 있다.

이어 첫 주말 중 토요일에는 10만846명의 관객을 동원, 다시 한 번 최다 관객수를 기록했다.

'침입자'는 지난 3월12일 개봉을 목표로 개봉을 준비해왔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며 한 차례 개봉을 미룬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개봉을 준비했으나 다시 한 번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개봉을 2주 늦었다. 두 번의 연기 끝에 개봉한 이 영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만명대 관객을 동원하며 극장 정상화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침입자'는 실종됐던 동생 유진이 25년만에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빠 서진이 동생의 비밀을 쫓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다. 김무열, 송지효가 주연을 맡았다.



사라진 동생이 돌아오고  
의심이 시작되었다

송지효 김무열

## '컴백' 슈퍼주니어-K.R.Y. '신곡 공개'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슈퍼주니어-K.R.Y.의 미니 1집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When We Were Us)이 드디어 오늘 베일을 벗는다.

슈퍼주니어-K.R.Y.는 8일 오후 6시 플루토, 멜론, 지니,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새 앨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전국 음원을 공개하고 같은 시각 유튜브 SMTOWN 채널, 네이버 TV SMTOWN 채널에서 동명의 타이틀 곡 뮤직비디오도 동시 오픈할 예정이다라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

신곡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When We Were Us)은 차분하고 섬세한 터치가 돋보이는 피아노와 후반부로 갈수록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트랙 편곡, 스트링 라인이 감성 짙게 표현된 정통 발라드 장르다. "땀을 수 없었던 우리의 빛나던 계절 가슴 가득 아름답게 내리던 비와", "몇 번을 다시 돌아가도 널 안고 안아 울고 웃던 과한 여름날 그리움" 등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련함을 녹여낸 가사가 특징이다.

또한 슈퍼주니어-K.R.Y.는 8일 오후 9시 네이버 V LIVE SMTOWN 채널에서 '푸르게 빛나던 슈퍼주니어-K.R.Y.의 계절' 생방송을 진행해 팬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슈퍼주니어-K.R.Y.의 국내 첫 피지컬 앨범 제작기, 비하인드 스토리, Q&A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을 포함해 '부산에 가면' (Way to Busan), '너에게로' (The Way Back to You), '할 수 없는 일' (I

Can't), '기대' (Home), '별의 동화' (Midnight Story)까지 총 여섯 트랙이 수록돼 슈퍼주니어-K.R.Y.만의 깊은 음악적 감수성을 만끽할 수 있다.

## 장민호, 신곡 '읽씹 안읽씹' 공개

영탁 자작 댄스 트로트곡

가수 장민호의 반전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신곡이 베일을 벗는다.

장민호는 8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읽씹 안읽씹'을 발매한다.

'읽씹 안읽씹'은 히트곡 '나 왜 거기서 나와'부터 최근 정동원X남승민의 '짜짜짜'까지 탄생시키며 프로듀서로도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영탁과 작곡가 지광민이 합작한 댄스 트로트 곡이다. 신나는 리듬과 신스 기반에 남성적인 일렉기타 사운드까지 더해져 가수 장민호의 히스키한 매력을 극대화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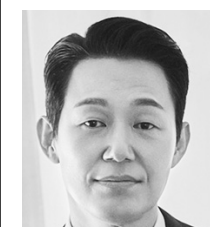
여기에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문자를 무시당하는 상황'을 재치 있게 그려낸 가사가 장민호 특유의 캐릭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기존 트로트와는 다른 유머러스하면서도 유쾌한 바이브를 선사한다. 또한 작재적소에 배치된 '국민 코러스' 김현아의 코러스와 영탁이 직접 녹음한 내레이션은 곡의 재미를 한층 더 배가시켜줄 전망이다.

특히 단 세 차례 만에 녹음을 끝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신곡 '읽씹 안읽씹'은 장민호에게 꼭 맞는 옷으로 주목받는다. 최근에는 SBS '미운우리새끼'를 통해 데모 버전이 선공개 되면서 발매 전부터 높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더운 여름, 리스너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할 장민호의 신곡 '읽씹 안읽씹'은 8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오는 18일 평창국제영화제 박성웅 개막식 사회자 선정



배우 박성웅이 올해 평창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8일 평창국제영화제에 따르면 박성웅은 오는 6월18일 오후 8시 평창 올림픽메달플라자에서 열리는 2020년 평창국제영화제의 개막식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올해로 데뷔 24년차를 맞이한 박성웅은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와 테마의 작품을 소화,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며 단단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2007)로 이름을 알렸으며, 영화 '신세계' (2013)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여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역린' (2014) '무뢰한' (2014) '오피스' (2014) '안시성' (2017) '내 안의 그놈' (2018) 등 다채로운 작품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연기 스타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주연을 맡은 '무뢰한' (2014)과 '오피스' (2015)가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호평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와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 '반도' 연상호 감독, 강동원 극찬 "액션에 감정 넣어 눈빛으로 표현"

'반도' 연상호 감독이 몸을 사리지 않는 배우 강동원을 칭찬했다.

연상호 감독은 8일 배급사 측을 통해 영화 속 정석 역을 맡은 강동원에 대해 "정석 캐릭터의 감정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오히려 저에게 제시했던 기억이 난다. 액션 장면에도 감정을 넣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마저 눈빛으로 표현해줬다. 감정이 풍부하고 처절한 느낌의 액션이 완성됐다"고 극찬했다.

'반도'는 '부사행' 그 후 4년,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영화 '전우치' '군도:민란의 시대' '검은 사제들' '검사와전' 등 매번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며 인상 깊은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강동원은 '반도'에서 폐허가 된 땅에 다시 돌아온 처절한 생존자, 정석 역으로 분했다.

정석은 4년 전 전대미문의 재난을 피해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받고 다시 폐허가 된 반도로 돌아오는 인물이다. 재난으로 가족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정석은 반도로 돌아온 뒤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하며 조금씩 변화한다.

강동원은 섬세한 감정 연기는 물론 넘치는 카리스마로 '액션의 정석'을 보여준다. 빠르게 질주하는 좀비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날 선 눈빛과 시원한 타격 등 강동원만의 액션 연기는 영화의 긴장감을 극도로 높인다. 몸을 사리지 않는 강동원의 연기에 연상호 감독은 "강도 높은 액션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직접 소화해 현장에서 도모범적이었던 기억이 난다"며 깊은 신뢰를 드러내 그의 변신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한편 '반도'는 다가오는 7월 국내외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동시 개봉 예정이다.

## '바람과 구름과 비' 충격 엔딩

박시후, 고성희 절벽 추락에 절규

'바람과 구름과 비' 박시후가 고성희의 추락에 절규했다.

지난 7일 오후 10시50분 방송된 TV조선 (TV CHOSUN) 특별기획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극본 방지영/ 연출 윤상호)에서는 최천중(박시후 분) 이봉련(고성희 분) 이하을(전광렬 분)이 각자 지키고자 하는 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최천중은 권세자들이 모두 모인 연회장에서 흥선대원군 이하을의 둘째 아들 재환이 왕의 재목이라며 예언,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천중은 재환을 직접 왕을 만들 것이라는 범상치 않은 다짐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그가 보여줄 행보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천중은 충격적인 예언을 단진 뒤, 본격적으로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한 설득에 나섰다. 자신을 업신여기는 철중(정욱 분)과 조대비(김보연 분)를 향해 "저는 전하를 영원히 살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세치 혀로 말합니다"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다음 왕위를 노렸던 이하전(이루 분)에게는 "진정한 왕제는 살아남는 자"라고 화유하며 화려한 언변을 선보였다.

또한 최천중은 이하전을 설득한 뒤 자백서를 함께 찾아 나섰다. 자백서에는 이하



을 이하전이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내용이 진술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하전의 수하 연치성(임현수 분)을 통해 채인규(성혁 분)로부터 자백서를 빼앗아오는데 성공.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그런가 하면 최천중은 이하과의 만남 도중,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아 고통에 울부짖었다. 이봉련이 총을 들고 있는 이하을으로부터 최천중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가 절벽 밑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이하을과 절규하는 최천중의 모습으로 충격적인 엔딩이 그려졌다.